

일어나라 (이사야 60:1)
빛을 발하라

함줄함울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_ 빌 2:2-3

2013년 4월 28일 주일 제 317호

발행인 : 박원호 | 편집인 : 김학원 |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 02-416-5181~2) | 편집 : 함줄함울팀

주님의교회 홈페이지 www.pcltv.org



제4회 전교인 걷기대회가 4월 13일 주님의교회와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다문화가족과 탈북청소년을 위한 제4회 전교인 걷기 대회

2013년 4월 13일, 주님의교회 성도들과 다문화가족 등 6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전교인 걷기 대회”가 탄천길을 따라 진행되었다. 다소 쌀쌀한 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송파다문화가족 150여 명, 하남 다문화가족 50여 명, 탈북 청소년 30여명, 장애인 40여 명이 함께 했다. 9시경 정신여고 운동장에 모여 간단한 몸풀기와 박원호 담임 목사의 기도 후, 우성아파트에서 탄천교를 거쳐 영동5교를 반환점으로 삼는 6키로미터 코스를 함께 걸었다.

11시 10분 경 교회로 복귀한 뒤에는 본당에서 신나는 2부 공연이 이어졌다. 식전 행사로 두드림 난타팀의 난

타 공연이 있었고, 청년부의 위십과 송파다문화가족의 공연, 하늘꿈학교 청소년들의 찬양과 장애우의 찬송이 이어졌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품 추첨이 진행되었는데,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자전거 4대 등 모두 42명에게 경품이 안겨졌다. 공연이 끝난 후, 250여 다문화가족과 탈북자 청소년들은 3부 소년부실에서 뷔페로 점심을 함께 나누었고, 가족별로 참치세트 선물이 증정되었다. “안수집사회 50여 명과 청년부 50여 명이 작년의 3분의 2정도로 삭감된 예산으로 이 행사를 위해서 2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부활절 예배 드라마 등 대형 행사와 겹쳐서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던 데다가, 날씨가

쌀쌀해서인지, 예년의 참석자 1,000여 명에 비해 참석이 저조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라고 행사를 진행했던 김동익 안수집사는 말했다.

박원호 담임 목사는 행사후 전 교인에게 보낸 목회 서신에서 “참석인원이 적은 것이 안타깝지만, 함께 봄길을 걷는 가운데, 오히려 이 소중한 일을 우리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에 크게 감사하게 되었음”을 고백했다. 이 행사에 참석했던 겨자씨에서 거둔 성금 509만원과 안수집사회의 성금을 합친 총 550만원의 성금은, 송파다문화센터, 하남다문화센터, 하늘꿈학교 등에 나누어 기증되었다. 화보 5면. <함줄함울>

2013 장애인 주일 행사, 제3회 하, 하, 하 장애인의 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두둥 두둥!” 지난 4월 21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장애인주일을 맞아 소박하지만 뜻 있는 행사가 열렸다. 주님의교회 장애인부가 주관해 열린 제3회 하, 하, 하, 장애인의 날 행사인 장애인 공연 ‘레인보우 두들소리 난타’와, 장애인 체험이었다. 2부와 3부 예배 후에 공연된 난타팀은 지적 장애인과 지도 교사 5명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타악기의 리듬으로 봄날의 공기를 뒤흔들었다. 장애인 체험은 휠체어 3대와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가 준비되어, 지체장애인의 입장을 직접 겪어보는 행사였다. 이날 약 100여 명의

교우가 안대로 눈을 가리고 걸어 보거나 휠체어를 타는 체험을 했다. “눈을 안대로 가리고 걷는 길이 이렇게 어두운 줄 몰랐습니다. 한 발자국 앞을 알 수가 없네요”, “휠체어 타는 일이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듭니다. 약간만 경사가 있어도 올라가기 어렵군요.” 등 직접 체험한 성도들의 고백들이 이어졌다. 행사에서 안내를 맡았던 복지위원회의 김대용 집사는 “일상 속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갖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줄함울>



장애인 주일을 맞아 시각장애인 입장이 되어 눈을 가리고, 흰 지팡이를 의지하여 걷는 체험을 가졌다.

쉽고 재미있는 기독교의 역사 5

이단들의 도전과 초대교회의 정경 채택-2

2세기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신약성서의 정경화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특히 로마에서 활동하였던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은 이미 135년경에 기록한 『유대인 트라이포와의 대화』에서 복음서의 내용을 직접 언급하면서 ‘사도들의 회고록’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비록 저스틴은 한 번도 바울 서신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제자 타이탄(Taitan)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복음서가 교회의 공식적인 경전으로 채택된다. 특이한 점은 이 최초의 복음서 채택이 로마제국 안의 기독교가 아니라 시리아 교회에서 먼저 공식화된 것이다. 저스틴에 의해 로마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타이탄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시리아 교회로 돌아가서(172년), 각종 개혁적인 정책으로 시리아 교회를 갱신함과 더불어, 사복음서를 시리아 교회의 공식 경전으로 채택하였다. 이를 ‘타이탄의 디아테사론(Diatessaron of Taitan)’이라고 부른다.

177년, 교부 이레나에우스(Irenaeus)는 리옹에서 발생한 기독교 박해 사건에 대한 편지를 아시아 교회에 발송하였는데,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약성서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레나에우스는 타이탄의 복음서의 실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 복음서를 기독교의 공식경전으로 인정하였다.

2세기가 마감되어 가던 시기에 초대교회의 대표적 신학자는 클레멘트(Clement)였다. 그는 이레나에우스와 함께 타이탄의 복음서를 공식적인 기독교 경전으로 인정한 사람이었다. 클레멘트는 사복음서가 마태-누가-마가-요한복음의 순서로 쓰여졌다고 믿었다. 또한 『히브리복음서』, 『마티아스 전통』, 『허마스』, 『바나바의 서신』, 『베드로의 묵시록』과 『디다케』 등도 신약성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3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는 알렉산드라의 탁월한 사상가 오리겐(Origen)이었다. 그는 18세의 나이에 알렉산드리아의, 일종의 신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의 자리에 올랐지만 우여곡절 끝에 가이사랴에서 다시 신학교의 문을 열었다. 오리겐은 최초의 신학자술로 불리는 『원리에 대하여』(De Principiis)에서 구약과 더불어 ‘신약(New Testament)’이라는 기독교 경전의 존재



구약성경의 마소라 본문 두루말이

를 처음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레나에우스와 클레멘트와 같이 타이탄의 사복음서가 기독교 정경으로 정통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244년). 그러나 오리겐은 클레멘트의 견해를 따라 『디다케』와 『바나바의 서신』 등도 경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3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4세기로 접어들기까지 초대교회는 로마황제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디오클레티안과 갈레리우스 황제의 기독교 탄압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수많은 기독교 문서들이 잿더미로 변했다. 로마황제들이 기독교 문서들을 불태워 없앨 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많은 성서사본들과 교부들의 저술이 소실되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약성서의 정경화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2~3세기 동안 이단적 사상의 도전을 받으며 서서히 경전의 모습을 갖추어 가던 초대교회는 4세기에 이르러 신약성서의 경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물론 콘스탄틴 대제의 개종 이후(312), 로마제국의 친기독교 정책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사가 유세비우스 기록에 의하면, 콘스탄틴 대제는 유세비우스에게 로마제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50권의 성서사본을 편찬하라고 지시하였다. 비록 유세비우스가 어떤 책들을 신약성서에 포함했는지에 대해 알 수 없지만, 현존하는 두 종류의 4세기 성서사본을 통해서 유세비우스의 사본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두 종류의 4세기 성서사본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신약성서 전체와 『바나바의 서신』, 『허마스』가 포함되어 있다.

350년 경에 씌어진 『교리자 강론』에서 예루살렘의 감독 시릴(Cyril)은 성서 외에 다른 어떤 책도 교회

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시릴이 말한 신약성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약성서 전체 중 『요한계시록』만 빼는 것이었다.

363년, 초대교회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의 정경채택을 위한 회의가 라오디게아에서 열렸다. 예루살렘의 감독 시릴의 영향을 받아 『요한계시록』을 빼는 지금의 신약성서 26권이 교회의 정경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363년의 결정은 4년 후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기독교 절기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통보하기 위한 아타나시우스의 편지가 367년 이집트의 교회로 우송되었는데, 이 편지(Festal Epistle)의 내용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지금의 신약성서 27권이 정경으로 공식화되었다. 이로써 약 300년 동안 진행되던 정경화의 과정이 일단락되고 기독교의 경전인 신구약성서 66권이 최종적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66권의 신구약성서가 기독교의 경전으로 정착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295~373)의 공헌도 크지만, 정착시킨 것은 히포의 대주교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의 후원과 384년 제롬(Eusebius Hieronymus, 345?~419?)에 의한 라틴어번역 『Vulgate Bible』가 중세교회의 공식성서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강찬 목사>

단소리 쓴소리

혹시라도,
주님의교회 교우는 아니시겠지요?



장애인 주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심코 세워진 승용차 한 대!
주님의교회 교우들이시라면,
주님의교회가 정신학원 강당을 빌려서 쓰고 있고,
평일에는 학생들을 위하여 주차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하철 역과 버스 정류장에서 겨우 3분
거리라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아무렇게나
주차하실 까닭이 있겠어요?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43회>

■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정통학과나 종파에서 벗어나 다른 학설을 주장하는 일 또는 교파. 헬라어 원어 “하이레시스” 처럼 단순히 분파, 파 등을 일컫는 경우와 교회 내에서의 편당을 가리키는 경우, 그리고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오늘날 “이단”이란 표현은 거의 세 번째 경우에 국한해서 사용된다.

■ 異端(이단)의 特徵(특징)

①그리스도를 부인함. ②주의 교훈을 대적하고 분쟁을 일으킴. ③다른복음과 교리를 좇음.

異端(이단, heresy)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일 4 : 1)

④세상학문과 철학으로 포장함. ⑤성도를 미혹함. ⑥탐심을 품고 성도를 이용함. ⑦성도를 노략질함. ⑧어리석은 변론을 즐김. ⑨분열을 조장함. ⑩양심과 행위가 타락하고 부패함.

■ 文字的(문자적)意味(의미)

★異(다를 이) : “빌려주다”는 뜻을 지닌 畀(줄 비)에 “받는다”는 뜻의 升(두손 공)을 합쳐 (한 손으로 편히 빌려 줄 때와 두 손으로 어렵게 받을 때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글자가 되었다.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속담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端(바를 단) : “뚝바로 서다”는 의미가 있는 立(설 립)과 “끝”을 의미하는 耑(끝 단)이 결합되어 (뚝바로 서있는 나무는 그 줄기의 끝도 바르다)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본래의 뜻인 “끝”으로도 쓰인다. <함술함술>

은혜와 함께 했던 주님의교회 2013년 부활절 예배드라마와 칸타타로 신앙 되새긴 한 주일

2013년 주님의교회의 부활절은 은혜로웠다. 2012년에 이은 두 번째 부활절 특별 예배드라마 “부활, 그리고 생명의 회복” 이 3월 31일 부활절에 주님의교회에서 드려졌다. 예수님과 요나의 극적인 만남을 소재로, 시공을 넘나드는 구성으로 기획된 이번 예배드라마에는 연인원 750여 명이 연기자, 성가대, 무대미술, 음악, 의상, 지원 등의 일로 헌신했으며, 7,500여 명이 이 예배드라마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예배는 송과구 부활절 연합 예배인 새벽에 하이라이트를 공연한 것을 필두로, 주님의교회 성도를 중심으로 한 1부와 2부

예배에 이어, 오후 5시에 지역주민과 외부 손님들을 위한 3부 예배에도, 예상과는 달리 1,2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4월 3일 수요일 예배 시간에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부활절 음악예배가 드려졌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주제로 존 피터슨이 작곡한 이 고은 고전적이면서도 부활을 확인한 후의 기쁨을 잘 표현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음악예배에서는 특히 르네상스 전후에 그려진 명화들을 음악과 함께 감상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함글함글>



요나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다시 되새겨보게 했던 2013 부활절예배드라마의 한 장면

함께 기도하자 손 내미시는 회복의 하나님 - 부활절 예배 드라마 간증



부활절 예배가 끝난 지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벽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 이것이 현실인가 꿈인가를 분간 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한 드라마 예배의 현장 속에 있는 나를 보며, 그때의 감동이 오래가는구나 싶었다. 빠듯한 회사일과 늦은 밤 연습의 연속으로 피로가 쌓여 잠에서 깨어나지 말아야하는 내 몸은 오히려

더 이른 시간에 더 활력 있게 일상을 살고 있었다. “뭐지? 철인이야? 그런데, 왜 이리도 마음이 아프지?...하 나님께서 내게 무얼 말씀하시려는 거지?...” 하나님은 내게 그런 분이시다. 무언가를 함께 하기 위해 잠에서 깨우신다. 남들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다는데... 11시 30분 드라마 예배가 끝나고, 준비실에서 소품을 정리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울부짖음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내 눈을 뜨겁게 하는 눈물로 인해 주섬주섬 짐을 챙겨 본당으로 들어갔다. 목사님이신 외삼촌이, 선교단체에서 오랜 삶을 산 믿음의 일세대인 내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설움과 아쉬움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남들이 잠든 사이 남몰래 기독교방송을 보시며 딸의 하나님을 궁금해 하시던 아버지. 운동을 하시면서 전단지를 나누는 분들에게 모세가 누구냐며, 아브라함이 누구냐며 물으시던 아버

지. 결국은 지식으로만 알고 떠나가신 분이다.

5시 예배에 대한 부담이 밀려왔다. 아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셨다. 주님의 교회에 올까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해, 드라마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드라마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했다.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북한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던 내게 다시금 그 줄을 잡고 함께 기도하자 손 내미시는 회복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 (역대하 7:14) <서회송 집사>

상례 규칙 제정

계속 증가하는 교인 규모에 맞추고, 불필요한 오해 피하도록 제도화

지난 3월 10일 정기당회에서는 그간 여러 각도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왔던 상례에 대한 교회 내부의 규칙을 정리해서 공유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간 최선을 다해서 상례에 임해 왔던 상례팀에 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고, 장거리 여행에 따른 경비와 이동 중의 위험 부담도 날로 증가하기 때문이다(함글함글 312호 4면, “천국의 길 환송하는 오분 대기조” 기사 참조).

이 논의를 주관한 상례위원회 조원호 장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흑사라도 교우들 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상례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라면서 교우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했다. 상례 규칙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함글함글>

상례 규칙

- 상례예배는 교회주관예배와 위로예배로 이루어진다. 교회가 주관하는 예배는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로 구분하며, 유가족의 요청에 따른다.
- 상례예배는 등록된 교인, 혹은 그 부모나 자녀가 소천하였을 때 유가족의 요청에 의하여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유가족이 상례예배를 원하는 경우는 교회 상례팀이나 교구목사에게 신청한다.
- 유가족의 요청으로 위로예배를 할 경우, 빈소에 위패나 제사상의 설치는 되도록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배드릴 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상례팀의 접수 담당자는 이를 사전에 유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 상례예배 담당 교구목사는 기도자를 되도록 교구장로로 하고, 기도자를 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상례부에 의뢰한다. 담당목사는 기도자에게 고인의 일반적 상황을 미리 통보하여 기도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 교회에서 상례를 알리는 문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회주관예배시에는 조기 1조, 조화 2개, 조의금 20만원을, 위로 예배시에는 조화 2개, 조의금 10만원을 기부한다.
- 주일에는 되도록 상례예배를 피한다. 발인예배의 인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임목사가 담당한다.
- 차량이동 시간이 2시간 이상 되는 거리(대전)의 상례는 담당목사, 상례팀 1~2명, 구역원 1명으로 상례팀을 구성하여 예배한다. 단, 특별히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로예배를 할 수 있다.

로렘나무

▶ '로렘나무' 는 일상에서 만난 신앙의 체험과 은혜의 기억을 칼럼 형식의 글로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많은 투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편지를 직접 전달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읽는 이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실 줄 알기에 이 글을 씁니다.

하나님께선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눈뜨고 보는 모든 것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작은 미생물부터 우주에 있는 행성들까지 그리고 지구에 존재하는 동물과 식물 그것을 돌보는 사람들의 아주 작은 세포까지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천국을 예수님께서 더러운 마굿간에서 태어나 세상의 더러운 죄를 혼자 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

갈 수 있는 천국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힘들고 절망적일 때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전 주님께 “나는 왜 사는 건가요?” 여쭙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어릴 적부터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학교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어와나에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조금씩 제 마음속에 생겨났던 그 질문.

“하나님 저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 살고 있는 거죠?” 엄마에게 물어보았더니 약간 당황해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어보렴” 하셨습니다. 바로 대답을 해주신 건 아니었지만 몇 번의 기도 뒤에 꿈속에서 만남 음성,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려는 거란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주님께서 하신 따뜻한 음성을 지

금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눈물을 흘리시며 종이에 적어서 붙여놓으셨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가슴 벅찬 경험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듣고 대답해 주신다는 것을 직접 느껴보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고 계셨던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동생들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해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할게요. 감사합니다. <초등부 박단>

주님의교회 전용 추모관 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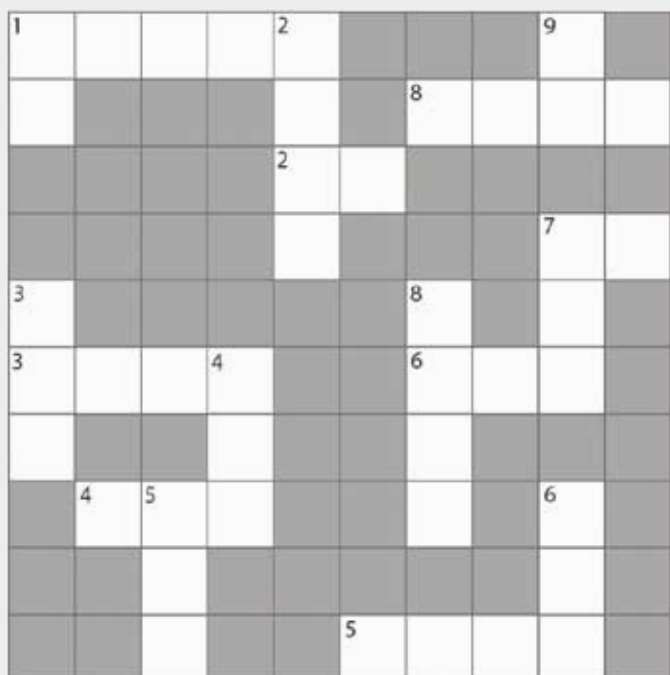
주님의교회 전용 추모관을 분양합니다. 추모관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몇 년에 걸친 논의 끝에, 전용 추모관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유토피아추모관에 개설하기로 하고, 당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유토피아 추모관은 주님의교회에서 75킬로미터 거리에 있으며, 2만평 규모의 대지에 봉안당, 수목장, 조각장, 산골장 등 다양한 추모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 ▶ 주님의교회 교우들에 대한 특별 분양기간 : 2013. 4. 21 ~ 5. 31.
- ▶ 접수 장소 : 교회 1층 로비
- ▶ 현장 투어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5월 5일부터 현장 답사 버스를 운행합니다. 주일 3부 예배후 13시에 출발합니다.
- ▶ 문의 : 주님의교회 상례팀 이상욱 팀장(010-9003-1842), 이혜숙 권사 (011-9021-7047)

주님의교회 카툰



말씀따라 가로세로 - 여호수아편



- 〈가로〉 1. 여호와께 범죄한 세라 족속 사람을 처죽인 곳
2. 요셉의 뼈를 장사한 곳
3. 지파별로 땅을 나누던 방법
4. 유다지파의 분깃의 일부를 기업으로 받은 지파
5.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 정복한 성으로 나팔소리와 함성으로 무너진 곳
6.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 중에 요단강 서쪽의 세 곳 중 한 곳
7.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가족의 목숨을 구한 여자
8. 여리고성을 둘 때 제사장들이 들고 불었던 도구

- 〈세로〉 1. 온전히 바치지 못하여 여호와께 범죄한 세라 족속의 사람
2. 갈렙은 분깃으로 받은 헤브론 땅의 이곳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었다.
3.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께 드리는 000 이다.
4. 여리고와 아이성을 차례로 점령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이곳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속여 화친을 맺었다.
5. 요단강의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땅을 받은 지파
6.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보복자를 피해 거할 수 있는 곳
7.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성을 치기위해 동맹을 맺은 다섯왕의 성 중 하나
8. 다섯왕이 도망하여 숨었던 곳
9.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후 그 곳 소산을 먹음으로 그 다음날부터 얻지 못한 것

〈지난호 가로세로 정답〉 - 가로 1.므리바물 2.엘르아살 3,603550 4,22000 5,가데스 6.나실인 - 세로 1.므리리자손 2.바기엘 3,601730 4,40 5.해달가족 6.나귀 7.비느하스 8.레위인

함께 걷는 봄길, 하나님 나라 가는 꽃길

다문화가족, 탈북 청소년과 함께 한 제4회 전교인 걷기 대회



꽃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이들, 꽃처럼 환합니다.



50명이 넘는 청년들이 행사 진행도 돕고 워십으로 행사를 빛냈습니다.



주님의교회 박원호 담임목사와 함께 걷기대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찰칵!



송파다문화센터 식구들이 전통 복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교회 장애인 교우들이 값비싼 향유를 드리듯 찬양을 올렸습니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일은, 이 젊은 청년들에게는 국경도, 언어도 초월하는 기쁨일 터입니다.



여럿이 서로를 위해, 차이는 있으나 차별은 없는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공연이 있었습니다.



레인보우 두들소리의 난타 공연입니다. 지적 장애인 5명과 지도교사 2명으로 구성 되어 웅장하고 박력있는 타악기 공연으로 자리를 빛냈습니다.

부르심의 길에 서서

“내 기도는 네가 이어가야 한다”



“창조과학 교과서 편찬위원”

대학 학부에서 지질학을 전공한 저의 장래희망은 “지구과학 교과서 편찬위원”이 되어서 창조과학에 관계된 부분을 집필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공부를 위해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갈 생각은 없니.”

그 부르심을 피하기 위해 학교 실험실에서 수개월을 지내며 유학을 준비하던 저에게 “그래도 기도를 통해 그 길이 나의 길이 아님을 확인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반나절 후 저는 아무런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기도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는 그 권면에 부담감을 가지셨는지 목사안수 받은 이후까지, 6여 년 동안 저를 위해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와 통화할 때면 ‘기도 열심히 하고 있지, 내 기도는 네가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

이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 가장 귀한 동역자는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전라남도 담양의 작은 마을을 신앙으로 지켜내시는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여러 선교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섬김과 사랑을 배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격적 기복이 많은 저에게 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뜻을 정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아내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사역 현장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역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행20:24, 새번역)

하루 하루 달라지는 저의 목회 열정을 돌아보면서, ‘열정이 사그라지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용웅 목사>

교회 사역 일정

- 4.23(화) 5.3(금) 12단계 성지순례
- 5.3(금) 겨자씨와 함께 하는 금요기도회
- 5.5(주) 어린이주일, 유아세례식, 무지개잔치
- 5.12(주) 어버이주일, 9기 결혼예비학교

당회 소식 <4월 의결 사항>

- 정신여중 발전 목적지원금 기탁 요청건중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금으로 23,306,2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다.
- 주님의교회 추모관(유토피아)을 확정하다.

■ 교회단신

군경 선교팀, 비룡부대 신병 진중세례식 행사



2013년 4월 20일 군경선교팀은 중부전선을 지키고 있는 비룡부대를 찾아 신병들의 세례 예식을 함께했다. 뒤늦은 봄날씨를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호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는 청년들과 함께한 시간이라서 더욱 흐뭇했다. 이날 150여 명의 장병이 세례를 받았다. <복향수 집사>

팝콘트리 중등부 학부모 초청 간담회



2013년 4월 7일 9시 30분, 팝콘트리 중등부에서는 지하 1층 중예배실에서 15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반별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함글함글>

실로암병원 개안수술 성금 증정



고난주일동안 금식으로 모아 성 금요예배에서 봉헌된 헌금 8백4십만 원을 지난 4월 7일 첫 주일에배에서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위한 성금으로 실로암병원에 전달했다. 작은 정성이지만, 값 있게 쓰여 한 분이라도 더 세상 빛을 보게 되기를 함께 기도했다. <함글함글>